티베트 불교계, 판첸 라마 36번째 생일 축하

中의해 판첸 라마 실종 30년째
망명 티베트 불교계 나서 호소
"그는 여전한 정신적 지도자"
인식 제고 촉구 캠페인 진행도

박영빈 객원기자


판첸 라마의 생일을 축하하는 따씨훈뽀 사원 대중들. 사진출처=파율

티베트 불교계 최고위 지도자 중 한 명이자, 지난 1995년 실종된 11대 판첸 라마 겐뒨 최끼 니마의 생일을 기념하고 그의 실종 30주년을 맞이해 인식제고를 촉구하는 캠페인이 인도의 망명 티베트 불교계에서 진행되고 있다. 지난 4월 25일 남인도 빌라쿠피에 소재한 따씨훈뽀 사원에서 진행된 행사에 대해 현지 티베트 뉴스 전문 온라인 매체인 '파율'이 상세히 보도했다.

티베트 불교의 지도자 중 한 명으로 존경받는 제11대 판첸 라마 겐뒨 최끼 니마는 1995년, 여섯 살의 나이로 제14대 달라이 라마로부터 10대 판첸 라마의 환생자로 공인을 받았다. 그러나 인정 직후인 1995년 5월 17일 중국 공산당은 그와 그의 가족을 강제로 납치, 구금했으며 어용 판첸 라마인 걜첸 노르부를 11대 판첸 라마로 내세웠다. 이후 겐뒨 최끼 니마는 세계 최연소 정치범으로 불리며 티베트 망명정부와 불교계, 여러 국제 인권 단체들의 심각한 우려사항으로 남아있다. 인권 단체들은 그의 건강과 행방을 밝힐 것을 중국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중국 정부는 "건강하며 일반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는 답변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지난 4월 24일 목요일 11대 판첸 라마의 36세 생일을 기념하는 한편 그를 구금한 중국 정부를 규탄하고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하는 행사가 따씨훈뽀 사원에서 봉행됐다. 따씨훈뽀 사원은 판첸 라마의 주석 사원으로 티베트 제2의 도시인 시가체에 소재하고 있으나 이곳에서 망명한 대중스님들에 의해 남인도 망명촌에 재건됐다.

따씨훈뽀의 주지 지꺕 린포체는 기조연설에서 유엔과 국제사회에 강력한 호소를 전하며 "판첸 라마는 30년 동안 세계 최연소 정치범이자 실종된 상태에서도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로 남아있다. 그의 기본권과 자유는 지체없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이 판첸 라마의 행방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을 오랫동안 거부해 온 것을 규탄하며 티베트의 종교적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개입을 강력히 비판했다.

한편 다람살라에서는 티베트 망명정부가 정보국제관계부를 통해 판첸 라마의 생일과 실종 30주년을 기념하는 한 달간의 인식 제고 캠페인을 시작했다. 4월 25일부터 1995년 판첸 라마가 납치된 날인 5월 17일까지 진행되는 이 캠페인은 이 사건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높이고 그의 신원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한 지지를 촉구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된다.

태국 국왕, 부탄 국왕 초청 국빈 방문

2016년 국왕 즉위 이후 첫 공식 국빈 방문


태국의 왕과 왕비가 4일간 부탄에 방문해 다양한 불교의식을 함께했다. 사진제공=부탄 국왕 공식 페이스북

태국의 마하 와치랄롱꼰 국왕과 수티다 왕비가 지난 4월 25일부터 4일간 부탄을 국빈 방문했다고 불교 인터넷 매체 부디스트도어가 4월 28일 보도했다.

이번 방문은 2016년 태국 국왕 즉위 이후 첫 공식 국빈 방문으로, 부탄의 지그메 케사르 남기엘 왕축 국왕과 쭌 페마 왕비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지그메 국왕은 지난 25일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태국 국왕 부부를 부탄 전 국민이 따뜻하게 환영했다"며 "이는 양국 간 우정과 선의의 관계를 드러냈다"고 기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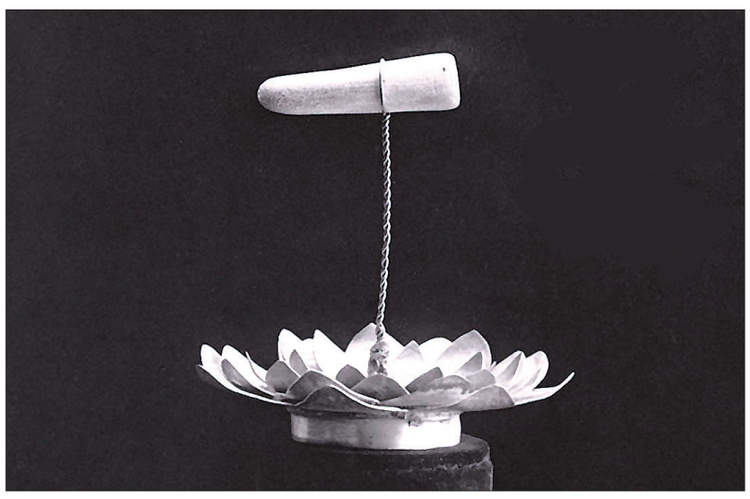
부탄 주재 태국 대사 마까와디 수밋 모르는 부탄 매체를 통해 "이번 방문은 현 국왕의 첫 해외 국빈 방문이자, 양국에게 역사적인 이정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국 왕실은 오래전부터 깊은 유대를 가지고 있었고, 이번 방문으로 그 관계는 더욱 특별해졌다"며 "태국 전 국민이 이 의미 있는 순간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으며, 이는 국민 간의 이해와 존중을 더욱 깊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하 국왕 부부는 26일 도르덴마(Buddha Dordenma) 불상 앞에서 진행된 불교 법회에 참석했다. 이 행사에는 부탄 승려 74명과 태국 승려 74명이 함께 참여해 공동 축원을 올렸다. 이밖에 마하 국왕 부부는 데첸촐링 왕실 프로젝트 방문, 파로 지역의 둥카르종 등 부탄 문화 체험 및 불교 유적지 순례, 겔레푸 명상 도시 프로젝트 탐방 등 일정을 소화했다.

한편 부탄은 세계에서 마지막 남은 금강승 불교 국가다. 8세기 구루 린포체(파드마삼바바)에 의해 불교가 전파된 이후, 드룩파 카규파와 닝마파 전통을 주로 따라왔다. 부탄 인구의 약 85%가 불교도다. 태국은 테라와다 불교 국가로, 2021년 기준 인구의 92.5%가 불교도다. 박정현 객원기자

스리랑카, 16년 만에 부처님 치아 사리 공개

4월 18~27일, 캔디 한 사원 전시
10일간 약 200만명 참배객 몰려


스리랑카에서 공개된 부처님 치아 사리. 사진제공=asianreviewofbooks.com

스리랑카는 부처님의 치아 사리를 16년 만에 처음으로 대중에게 공개했다.

불교 온라인 매체 부디스트도어(Buddhist Door)의 지난 4월 25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스리랑카 당국은 지난 4월 18일부터 27일까지 캔디(Kandy) 시에 위치한 스리 달라다 말리가와(Sri Dalada Maligawa) 사원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치아 사리를 전시했다. 스리 달라다 말리가와 사원은 고대 왕궁 근처에 위치해 있으며, 석가모니 부처의 신성한 치아 사리를 모신 세계적으로 중요한 불교 성지다. 이 사원은 1988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부처님의 치아 사리는 301~328년 키르티 스리 메가바르나(King Keerthi Sri Meghavarna) 왕의 통치 시기에 고대 인도 도시 칼링가(Kalinga)에서 헤마말라 공주와 단타 왕자에 의해 스리랑카로 옮겨졌다. 이후 천도 때마다 유물도 여러 사원으로 옮겨졌으며, 1590년에 캔디 시로 이전된 이후 지금까지 이곳에 보관돼 왔다.

해당 치아 사리는 스리랑카 불교의 상징이자 전 세계 불교계에서 숭배 받는 유물 중 하나다. 스리랑카 인구의 약 74%를 차지하는 싱할라 불교도들에게는 영적·역사적·문화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당국 경찰에 따르면 치아 사리가 공개된 첫날 약 2시간 30분 만에 12만 5천 명 이상이 사원을 방문했다. 이에 당국은 이튿날부터 하루 관람 시간을 전격 연장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AFP통신을 통해 "10일간의 행사 기간 중 약 200만 명의 참배객이 캔디를 방문한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전시 중 유물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 소셜미디어에 유출돼 스리랑카 당국은 해당 사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전시장 내 촬영은 일절 금지됐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진이 전시 기간 중 실제로 촬영된 것인지 혹은 디지털 조작된 것인지에 대한 확인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누군가 사원 안에서 사진을 찍었다면 이는 심각한 보안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박정현 객원기자

베트남, 2025 UN 베삭데이 축제 개최

5월 6일부터 3일간, 호치민시서



베삭데이 축제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중인 VBS. 사진출처=VIETNAN.VN

베트남 불교계를 대표하는 베트남 불교승가회(VBS)가 UN 베삭데이 축제 개최에 대하여 공식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 4월 22일 베트남 공식 뉴스 플랫폼인 'VIETNAN.VN'은 기자회견 내용을 인용하여 대규모로 개최되는 이번 축제에 대해 집중 보도했다.

올해 베삭데이는 5월 6일부터 3일간 호치민시에서 진행되며, 베트남은 지금까지 총 3번의 베삭데이 축제를 개최한바 있다.

VBS측은 "올해 베삭데이 축제의 슬로건은 '인간의 존엄을 위한 연대와 관용: 세계 평화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불교의 지혜'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세계평화, 용서와 치유, 지속 가능한 미래와 같은 하위 주제들을 가지고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베삭데이 축제 조직위원회는 "현재까지 85개국과 지역에서 약 1200명의 국제대표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며 베트남 국내에서는 약 1500명의 불교계 대표와 인사들이 참여할 것"이라며 "축제 기간 동안 진행되는 여러 학회와 세미나를 위해 578건의 영어 논문과 330건의 베트남어 논문을 접수받았다"고 전했다.

조직위 측은 "이번 축제를 위하여 VBS는 베트남과 인도 양국 정부의 합의 하에 인도 국립박물관에 소장 중인 부처님 진신 유골사리를 베트남으로 특별히 이운해 축제기간 동안 대중에게 공개한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현재 축제 프로그램에는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연등 점등식, 108그루의 보리수 식수 등이 예정돼 있다. 박영빈 객원기자



사찰 편백나무 맞춤가구 전문점
스님 건강, '편백가구'로 지킨다
편백(히노끼)나무 효능
편백나무는 항균효과가 뛰어나 세균번식에
가장 취약한 목욕 욕조를 비롯하여
인테리어 용품, 주거용 목재, 침대 등 가구소재로 주로 사용된다.
특유의 향으로 인해 정신을 맑게 하는데 이는 피톤치드 때문이다.
편백나무는 일반나무보다 5.5배 가량 피톤치드가 많아
삼림욕을 하면 심신이 안정된다.
편백 온열 그래핀보료
신체 기(氣, Energy)를 충전하고 균형을 바로 잡는 초장파 에너지
건강하고 오래사는 것은 인류의 오랜 소망
지친 몸과 스트레스를 수면과 함께 깔끔하게 해결하세요.
• 피로 회복
• 근육 결림 해결
• 혈액 순환 개선
• 신경통, 근육통 완화
• 만성 피로 해소
편백침대
숙면이 보약
편백 숯침대
FINE TERRA
love is fineterra
규조토 비누
'FINE TERRA'
절찬 판매
판촉용 대량구매시
70% 할인
향긋함과 함께~
기다려지는 세안~~~
알파토 규조토 soap
민감성 피부에 도움
그 린 에 너 지
GREEN ENERGY COMPANY
제품문의 031-5 4 2-2735
010-3576-6802
계 좌 : 농협 1186-02-058581
예금주 : 그린에너지(이도연)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319-16 (무봉로 15)
전제품 국내산